‘조형언어’로 한국 마애불 조명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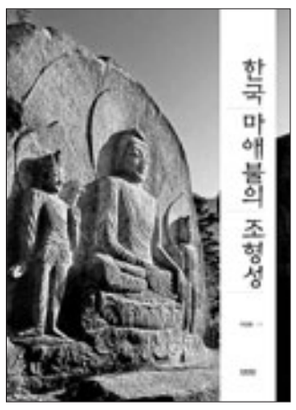
주목! 학술서

이성도 교수의 〈한국 마애불의 조형성〉

암벽에 새긴 불상, 마애불(磨崖佛)은 한반도에 불교가 전래되기까지 인도 · 중국에서도 보편적으로 나타난 불상이다. 한국의 마애불은 7세기를 전후해 충청도 해안지방을 중심으로 조성되기 시작했다. 이 같은 마애불은 국보로 지정된 것이 30여 점에 이를 정도로 한국 불교미술사에 있어 중요한 위치를 갖고 있다.

삼국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꾸준히 조성됐던 마애불을 이성도 한국교원대 미술교육과 교수는 조금은 색다른 시각으로 읽어낸다.

이 교수는 최근 발간한 연구서 〈한국 마애불의 조형성〉에서 기존의 양식사적 구분이 아닌 조형언어로 시대 의식을 찾아내고 있다. 기실, 한국미술사의 기술방식은 양식사를 중심으로 기술하고 있던 것이 주지의 사실이다. 하지만 이 교수의 연구서는 오랫동안 조각가인 저자가 제작적 경험과 조형적 시각을 빌려 전통적인 석불인 마애불을 분석하고 기술해 눈길을 끈다. 기존의 미술사에서 간과하기 쉬운 조형적 특성인 조형성을 표현적 특성을 재료와 기법 그리고 여러 조형요소인 선과 리듬, 형태, 비례, 매스와 볼륨 그리고 표정 등의 분석을 통하여 조형성과 조형의식을 탐구하고 있다.



마애불 시대별 조형의식 분석

양식사와 다른 새로운 접근법

한국 마애불, 단순화를 지향해

자연주의 미학 확연히 두드러져

〈한국 마애불의 조형성〉은 6편의 논문으로 구성됐다. 서론에서는 우리나라 미술사에 있어서 불교 미술이 차지하고 있는 위치와 독특한 형식이 가지는 의미에 대한 개론을 제시하고 있다.

본론 1편에서 4편까지는 우리나라 마애불의 조형성에 대해서 백제와 신라, 통일신라, 고려, 조선 4개의 시대별로 구분하여 상세하게 설명한다. 마지막 5편은 이 책의 하이라이트로 우리나라 마애불에 나타나고 있는 미의식에 대한 연구다. 또한, 부록인 ‘불상조각의 이해’만으로 불상조각의 개괄적인 이해가 가능하다.

이 교수가 읽어내는 한국 마애불의 미의식은 무엇일까. 그는 ‘자유주의’가 한국 마애불을 관통하는 미학이자 미의식이라고 주장한다. 일반적으로 불상은 숭고하며 장중한 모습으로 표현되지만 마애불은 장식적 요소가 강조되지 않고 단순화와 자연스러움이 표현된다는 것이다.

이 교수는 “마애불은 지혜와 복덕을 구족한 이상적인 불상 조성과 한국 전통미술에서 추구된 미의식인 자연주의가 공존한다”면서 “우리 마애불에는 토속적인 민속신앙과 습합된 미의식, 바위에 대한 믿음의 미의식 등 자연주의 미학이 내재돼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국의 마애불은 자연주의 미학과 절제되고 함축적인 표현 속에 지극히 인간적인 모습의 부처를 추구했다”면서 “이는 마애불에서만 보이는 미의식이나 조형의식이 아니라 한국미술의 보편적 미의식과 조형의식에 수렴하고 있다. 이는 자연에 순응하는 자연주의 미학의 모습”이라고 강조했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불교평론 학술상 윤창화 대표 선정

오는 12월 21일 시상식



불교 학술 계간지 〈불교평론〉의 올해 학술상 수상자로 재야학자이자 불교 출판인인 윤창화 민족사 대표〈사진〉가 선정됐다.

〈불교평론〉은 “올해 불교평론 학술상 수상자로 윤 대표의 저서 〈당송시대 선종사원의 생활과 철학〉이 선정됐다”고 11월 6일 밝혔다.

〈당송시대 선종사원의 생활과 철학〉은 선종의 여러 청규와 선문헌을 바탕으로 중국 당송시대 선종사원의 생활과 각종 제도, 가람 구성, 생활철학, 사상 등을 탐구한 수작이다.

이번 수상에 대해 윤 대표는 “졸저는 당송시대 오도(悟道)시스템을 바탕으로 오늘날 한국 선원을 비추어 보자는 의도도 있었다. 그 의도가 어느 만큼 이뤄졌는지는 모르겠으나 공부하는 동안 행복했다”면서 “사색은 아름답다. 탐구는 아름답다. 미륵보살반가사유상이 아름다운 것은 그 때문이다. 방일하지 말고 일신우일신(日新又日新) 할 것을 다짐한다”고 밝혔다.

신성민 기자

“선수행 통한 非相, 강한 종교교육”

안호영 교수, 3일 종교교육학회 학술대회서

뇌과학 · 禪 접점, 비판적 고찰



뇌과학으로는 상(相)과 비상(非相)의 간극을 극복하지 못하며, 강한 종교교육은 선수행으로 가능한 비상을 통해 이뤄질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안호영 동국대 경주캠퍼스 파라미타 칼리지 교수〈사진〉는 11월 3일 동국대 덕암세미나실에서 열린 한국종교교육학회 추계학술대회서 이 같이 주장했다.

안 교수는 발표 논문 ‘종교, 교육은 가능한가- 뇌과학과 선불교를 중심으로’에서 뇌과학과 선불교의 차이를 비판적으로 고찰했다.

안 교수는 뇌과학과 선불교가 문제를 인식하는 시작부터 확연한 차이를 보이고 있음을 분명히 했다. 그는 “선불교는 근본을 묻는 것인 반면, 뇌과학은 원인을 탐구한다”면서 “선불교는 인간의 존재에 대한 근본 물음을 제기하지만, 뇌과학은 ‘인간의 존재’를 너무 포괄적으로 이해해 오해가 발생한다”고 분석했다.

대표적인 것이 ‘상(相)’에 대한 문제이다. 명상 등 다양한 방식으로 뇌를 자극할 때, 많은 사람들이 신비체험을 하고 이를 통해 속박을 벗어나는 경험을 하지만, 신비체험이라는 것 자체가 상일 수 밖에 없다는 게 안 교수의 주장이다.

안 교수는 “뇌과학이 만든 상으로는 종교적 반성에 이를 수 없다. 종교적 반성은 비상(非相)의 체험이기 때문”이라며 “비상 자체를 인식하는 것은 뇌과학과 무관하며 상으로는 비상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만약 상과 비상의 차이를 구분하지 않는다면, 근원없는 무한퇴행에 빠져 자신도 모르게 ‘닫힌 사회’와 정적 종교에 젖어들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뇌과학으로는 상과 비상의 간극을 극복하지 못함’을 분명히 한 안 교수는 뇌과학을 통한 종교교육에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이에 대해 안 교수는 “뇌과학으로 접근할 수 있는 초월적 종교 경험은 상에 의지한 약한 종교교육이며, 선수행으로 가능한 비상은 강한 종교교육”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이날 대회에서는 △김경이 · 우정원(가톨릭대)의 ‘가톨릭 종교교육을 위한 뇌기반 학습과학 연구 동향 고찰’ △정혜정(원광대)의 ‘뇌과학과 동학의 마음교육’ △류현민(선문대)의 ‘신념 및 신앙 형성 메커니즘에 대한 뇌과학적 고찰’ 등이 발표됐다.

신성민 기자



런던 한복판서 만나는 석굴암 부처님

런던 한복판서 석굴암 부처님을 비롯한 한국의 세계문화유산을 11월 동안 영상으로 만날 수 있게 됐다. 지난 11월 1일부터 상영을 시작한 문화재청의 홍보 영상물은 오는 30일까지 한 달간 방송되며 1일 48회(총 1,440회)씩 상영된다. 총 1분 길이의 영상물로 세계유산, 인류무형문화유산, 세계기록유산 분야 중 12개 유산인 석굴암 불국사, 백제역사유적지구, 해인사 고려대장경판 및 제경판, 종묘, 종묘제례 및 종묘제례악, 창덕궁, 조선왕조실록, 조선왕릉, 고창 화순 강화 고인돌 유적 등을 소개한다.

신성민 기자

성철 스님과 현대 한국불교를 논하다

백련불교문화재단, 11월 17일 학술대회

봉암사 결사 70주년과 해인총림 50주년을 맞아 성철 스님과 현대 한국불교의 정체성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재)백련불교문화재단(이사장 원택)은 11월 17일 오전 10시 30분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지하 2층 전통문화예술공연장에서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퇴옹 성철과 현대 한국불교의 정체성’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학술대회는 봉암사 결사 70주년과 해인총림 50주년을 기념하는 자리이다.

이날 학술대회는 성철 스님의 생애를 되짚고, 현대 한국불교와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살피는 논문들이 발표된다.

주요 발표 논문으로는 △이종수(순천대 사학과)의 ‘봉암사 결사의 배경과 불교사적 의미’ △조기룡(동국대 불교학술원)의 ‘해인총림 결성의 배경과 현대적 의의- 퇴옹성철의 사상과 활동을 중심으로’ △서재영(불광연구원)의 ‘근현대불교에서 퇴옹성철의 역할과 백일법문의 위치’ △박인석(동국대 불교학술원)의 ‘퇴옹성철의 선문헌 번역사업의 내용과 의의’ △최원섭(동국대)의 ‘퇴옹성철의 대중포교 내용과 불교사적 의의’ △변희욱(서울대 철학사상연구원)의 ‘성철의 교외별전- 성철의 거짓말에 속아야 할까, 속지 말아야 할까’가 각각 발표된다.

이번 학술대회에 대해 이사장 원택 스님은 “현대 한국불교의 선지식인 성철 스님에 대한 객관적 평가를 통해 스님이 한국불교에 미친 영향을 살펴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신성민 기자

봉화 청량산 암자터 복원 정비 추진된다

6일 지표조사 보고회 개최

경북 봉화군 청량산 암자터가 복원 · 정비가 본격 추진될 전망이다.

청량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소장 조준한)는 11월 6일 봉화농경문화전시관 다목적실에서 청량산 암자터 정밀지표조사 및 학술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는 용역 실무를 맡고 있는 조계종 불교문화재연구소 이현수 팀장의 결과 보고를 시작으로 관련 전문가와 관계자의 질의응답 등을 통해 청량산 암자터에 대한 향후 조사와 정비방안, 단계별 소요예산 등에 대한 논의로 진행됐다.

이날 관련 전문가들은 “청량사 암자터는 고려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의 불교문화를 통시적으로 보여주는 매우 중요한 유적이나 등산로 상에 위치한 대다수의 암자터가 훼손 우려가 높아 향후 추가 학술조사가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신성민 기자

기공 염불소리치료 명상 센타

기에너지 음악치료 명상

무료공개 강좌 : 매월 셋째주 일요일 낮 12시

미래의 대체의학인 기공(밀교의 의성신 · 금강신)을 배우고 익혀서 몸과 마음을 닦아 위로는 깨달음을 구하고 아래로는 중생을 이롭게 하고 제도하는데 원력을 세워서 수행 정진 하실 분

■ **입 문 :** 초보 입문자의 기맥을 직접 열어주고 발공능력까지 갖추는데 3~6개월(주1회 특별수련)
■ **고 급 :** 개인의 기공능력을 아무 부작용 없이(주화 입마, 상기병 등등) 키워나가면서 단기간에 최고의 경지에 이르고자 하는 분(비법 전수)
■ **특 징 : 제6차크라(제3의 눈 · 뇌의핵심〈송과체〉· 인당)가 단기간에 몸이 바뀌면서 온 몸에 신경세포가 전부 살아 움직이고(피부호흡) 머리에서 부터 발끝까지 온 몸에 24시간 강력한 전류가 흐르며(기에너지체) 고요하고 편안한, 몸이 완전히 이완된 상태에서 부작용 없이 자연스럽게 뚫리고 열려 나감**
■ 개인지도(면접 상담 후 결정) ■ 등록번호 : 138-50-00260
■ 문 의 : ☎ 02-393-8027 (기공치료 예약 접수)

기공치료 명상가 처명(선광)스님

• 동국대학교 일반대학원 선학과 응용선학 박사과정
•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명상심리상담학과 석사 졸업
• 중앙승가대학교 불교학과 졸업
• 동방대, 옥천범음대 졸업, 중앙승가강원 대교과 수료
• (사)한국산업카운슬러협회 1급 지도자(심리상담)
• 서울 남부 구치소 교정위원, 前 서대문경찰서 경찰발전위원회 위원
•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 국가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이수자

기공 염불소리치료 명상 연구소 (소장 : 처명)

제97기 교직자 양성 전문교육

佛教儀式(범음·범패) 學人 모집

본 대학 불교의식 교육원에서는 학인을 모집합니다.

■ **과정**(야간 및 통신생)

기본과정(3개월)	사물(목탁, 요령, 태징, 법고) 다루는법, 도량석, 쇳송, 상단예불, 각단예불, 천수경, 행선축원, 불공시식 등
중급과정(3개월)	상주권공, 대령관욕, 신중작법, 지장청, 관음시식, 다비식 등
신행과정(1년)	기본 · 중급 수료자에 한 함
특수작법(1년)	기본 · 중급 수료자에 한 함

◆ 모집인원 : 30명 (선착순)
◆ 개 강 일 : 2017년 11월 중
◆ 강의일시 : 매주 (화, 금) 오후 5시 ~ 6시 30분 (90분 강좌)
◆ 제출서류 : 입학원서 1통, 반명함판 사진 2매

※ 본원은 초종파 교육도량으로서 수료증을 수여하며, 승려 후보생의 수계득도, 포교원(사찰)창건의 지도와 편의를 제공합니다.
※ 초심자라도 여법하게 불교의 전통의식을 봉행할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 전화 · 서신 문의하시면 안내서를 보내드립니다.

海東佛教儀式教育院

海東佛教梵音大學

서울 종로구 낙원동 243-3 탑골공원 뒷편 ☎ 02)741-0495,0496